

조선/기계 김 현

02. 6098-6699 / hyun.kim@meritz.co.kr



국내 주요 조선/기계 업체 Valuation

업체명	시가총액 (십억원)	외국인지분율 (%)	종가 (원)	1D	1M	3M	YTD	PER(x)		PBR(x)		ROE (%)	
				(%)	(%)	(%)	(%)	18E	19E	18E	19E	18E	19E
현대중공업	8,057.8	16.5	116,500	-4.1	-9.3	-16.5	21.4	81.2	38.9	0.6	0.6	0.7	1.4
현대중공업지주	5,952.8	21.8	365,500	-5.2	-17.0	-14.1	4.1	4.9	4.1	0.7	0.6	14.1	14.7
현대일렉트릭	807.3	4.6	79,100	-6.9	-23.2	-4.6	-30.6	7.5	6.5	0.7	0.6	9.3	9.7
현대건설기계	1,565.4	8.4	158,500	-3.6	-16.1	-10.5	-6.2	10.1	7.4	1.1	1.0	11.7	13.9
삼성중공업	4,668.3	17.3	7,410	-1.7	-7.0	-12.1	14.6	46.7	232	0.5	0.4	1.0	1.9
대우조선해양	2,803.4	4.9	26,150	-5.6	-3.1	3.0	88.1	7.9	11.4	0.8	0.8	10.9	6.8
현대미포조선	1,766.0	9.9	88,300	-4.2	-12.6	-17.5	12.2	19.1	13.8	0.7	0.6	3.6	4.8
한진중공업	348.9	6.7	3,290	-2.2	-7.1	-0.5	-0.6	66.2	16.5	0.5	0.5	0.7	2.8
현대엘리베이터	2,783.7	21.5	102,500	-14.2	-10.5	37.0	88.4	18.1	17.6	25	22	14.6	13.3
두산밥캣	3,238.0	26.6	32,300	-4.9	-0.3	-14	-9.8	11.8	11.2	0.9	0.9	7.4	7.6
현대로템	2,720.0	7.6	32,000	-12.6	-20.1	106.5	70.7	41.3	28.1	18	17	4.5	6.3
하이록코리아	409.8	49.4	30,100	-1.6	3.6	23.9	33.8	13.6	12.5	12	1.1	8.8	9.0
성광밴드	344.6	17.4	12,050	-5.5	-10.1	3.0	20.7	1,065.2	43.2	0.8	0.8	0.1	1.8
태광	331.3	12.6	12,500	-3.1	-12.0	-3.8	3.7	74.6	36.4	0.8	0.8	1.0	2.1
두산중공업	1,873.8	11.9	17,600	-5.9	-14.1	16.2	14.7	19.1	11.1	0.6	0.6	3.6	5.4
두산인프라코어	2,133.5	16.4	10,250	-3.8	-9.7	8.6	18.0	7.3	6.7	1.1	1.0	16.1	15.1
두산엔진	496.9	4.5	7,150	0.0	N/A	N/A	94.0	-25.1	-39.6	1.0	1.0	-3.0	-3.5
한국항공우주산업	4,342.5	14.5	44,550	-2.9	3.2	-11.1	-6.1	34.1	25.3	3.5	3.1	10.3	12.9
한화테크윈	1,549.1	12.4	29,450	-4.4	2.6	1.0	-17.2	35.0	19.4	0.7	0.7	2.0	3.4
LIG넥스원	1,087.9	9.0	49,450	0.7	14.5	7.0	-17.3	21.4	14.5	1.7	1.5	8.6	11.4
태웅	352.1	4.6	17,600	-2.8	-19.1	-13.7	-9.0	N/A	N/A	N/A	N/A	N/A	N/A
동성화이텍	165.4	4.5	6,130	-3.0	-8.8	-25.3	21.4	-45.1	64.5	1.9	1.9	-4.3	3.1
한국기본	269.5	13.6	6,130	-1.1	-8.1	-12.2	14.4	33.4	17.4	0.8	0.8	2.5	4.7

주: 카버리지 업체 PER/PBR/ROE는 메리츠증권증권 추정치, 그 외 업체는 Bloomberg 컨센서스 수치 /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주요 지표 및 차트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IMO는 단호하다

그리스 Posidonia 전시회에서 몇몇 선주들이 IMO의 환경규제의 부당성에 대해 토로했으나, IMO 관계자는 2020년에 0.5% Sulphur Cap 시행에 대해 타협은 없다고 밝혔다고 알려짐. 또한 규제 지연은 없다고 단언하며, 규제 위반은 선박 엑루나 항해 부적합 선박으로 분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전망임. (선박뉴스)

SCF shows interest in icebreakers and MR tankers

러시아 Sovcomflot(SCF)은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MR탱커와 쇄빙선 신조에 관심이 있다고 알려짐. Sovcomflot은 LNG가 친환경이란 점에서 선박연료 시장에서 주된 연료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며, 현재 현대중공업과 러시아 Zvezda 조선소에서 Dual-fuel 탱커 15척을 건조 중임. (TradeWinds)

Star Bulk, 스크러버 손 들어주었다

벌크선사 Star Bulk은 2020년 환경규제에 대응해 보유한 Capesize급 벌크선 22척에 스크러버를 장착하기로 결정했다고 알려짐. 회사 관계자는 유럽의 스크러버 제조사에서 총 22기를 개당 평균 3백만달러 미만에 주문했다고 알려짐. 스크러버는 내년 상반기 중 선박에 장착될 예정임. (선박뉴스)

Rickmers and MTT opt for scrubbers on newbuildings

Rickmers와 MTT는 건조 중인 10척의 Feeder 컨테이너선에 스크러버를 장착할 계획임. 척당 2백만달러의 비용이 소요될 전망이며, 화물 적재가능량이 소폭 줄어들 예정임. 관계자는 저유황유를 사용하기에는 1) 저유황유의 가격과 2) 저유황유 병커링 항구 등 불확실성이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함. (TradeWinds)

Scrubbers, LNG and compliance defined Posidonia 2018 agenda

그리스 Posidonia에서 주된 토론 주제는 2020년 초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방안이었다고 알려짐. 현재 기존 선박연료와 저유황유는 톤당 200~250달러의 차이를 보여, 기존 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Scrubber를 선호하는 모습임. 그러나 Scrubber가 지속 가능한 대안인지 여부는 논란이 있음. (TradeWinds)

Sovcomflot gears up for its first LNG-fuelled aframaxes

러시아 Sovcomflot은 다음달 현대삼호중공업에서 LNG추진 Aframax급 탱커를 인도받을 예정으로 알려짐. 선박은 11.4만DWT급으로, 오일메이저 Shell에 용선될 계획임. Sovcomflot은 2017년에 Shell에서 선대의 전 선박에 LNG를 공급받기로 계약했고, Shell은 로테르담을 중심으로 병커링을 계획함. (TradeWinds)

Frangou's Navios eyes rare VLCC order at Imabari

그리스 선주 Angeliki Frangou의 Navios Maritime Group은 일본 Imabari 조선소에 VLCC 2척의 신조를 위한 LOI를 체결했다고 알려짐. 인도는 2020년으로 스크러버를 설치할 계획으로 알려짐.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Navios는 지난 3월 대우조선해양에 VLCC 2척을 비공식적으로 발주했다고 알려짐. (TradeWinds)

장병우 현대엘리베이터 사장 "2018년, 3가지 성장 전략 집중"

현대엘리베이터는 14일 '2017~18 연차보고서'를 통해 2018년은 1) 국내 수익 강화, 2) 글로벌 역량확대, 3) 미래 성장동력 확보 전략에 집중할 계획을 밝힘. 특히 2019년 말 상하이 신공장이 완공되면 연간 생산량이 2.5만대 증가하며, 이는 기존 생산능력 대비 3.5배 수준의 규모로 예상됨. (뉴스1)

동 자료는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 당시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2018년 6월 15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유가증권(DR, CB, IPO, 시장조성 등) 발행 관련하여 지난 6개월 간 주간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시는 2018년 6월 15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0%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시의 조사분석 담당자는 2018년 6월 15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김현)

동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시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원칙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동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